

[위대한 정치]

- 서평 -

이영환

[위대한 정치]를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이 서병훈 선생님(이하 '저자')의 고백록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정립하면서 서로 영향과 우정을 주고받았던 두 위대한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스 토크빌의 삶과 사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학문적, 객관적 연구서일 뿐 아니라 불완전한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실존적으로 모색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전에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주었을 뿐 아니라 이 일 저 일에 치여 너무 자주 잊게 되는 학자로서의 책무, 올바른 삶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이 책은 밀과 토크빌의 우정의 부침을 다루는 3부를 제외하면 두 사상가를 각각 삶(1부), 글(2부), 정치이론(4부), 정치활동(5부)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에서는 1장에서는 밀을, 2장에서는 토크빌을 다룬 후 3장에서는 그 둘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슷한 내용이 약간씩 반복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구성방식에서 그런 반복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독자에게 비교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주는 미덕이 있으니 흠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삶과 사상이 각각으로도 흥미롭지만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를 통해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망해주는 서술방식은 탁월한 구성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내용을 토론하기에는 저의 감량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서평에 갈음하려합니다.

3부에서 밀과 토크빌의 우정이 소원해진 이유에 대한 기존의 설명의 미흡함을 지적한 후 저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몇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밀의 '선익의 제국주의'라는 개념과 이에 대한 토크빌의 비판입니다.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해 밀과 토크빌이 직접 설전을 벌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 두 마디씩 던진 흔적은 있다고 말합니다. 토크빌이 밀에게 1843년에 보낸 편지에서 정치인이 자기 나라의 명예나 정의를 제쳐두고 다른 보상을 찾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고 썼는데 이 것은 영국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 인도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그리고 그러고 있다는) 밀의 '선익의 제국주의'에 대한 에드윈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225쪽) 저자는 이에 대해 밀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주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둘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하는데 일조했

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주어진 정보를 볼 때 전체적인 저자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예로 들고 있는 구체적인 구절이 밀이 자신의 ‘선의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었을 만한 구절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영국이 식민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진보된 국가로서의 영국의 명예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토크빌이 얘기하는) “자기 나라의 명예를 추구함”이 (밀이 얘기하는) “식민지의 이익을 위함”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밀이 토크빌의 위 구절에 아무 언급을 안 한 건 그 구절이 자신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은 없을런지요.

저자는 또한 둘의 우정이 식게 된 부가적인 원인으로 밀의 개인적인 사정을 지적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밀이 1840년에 자신이 편집 책임을 맡았던 잡지 [런던 평론]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밀이 이제 그 잡지를 위해 유명인인 토크빌을 필진으로 확보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난 것도 “토크빌에 대한 그[밀]의 관심이 식게 한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228쪽) 그런데 만약 그렇게 둘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특히 밀이 토크빌에 대해 가졌던 “우정”을 너무 이해관계에 의존한 우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1. 이해관계에 기반한 우정, 2. 즐거움에 기반한 우정, 3. 덕/훌륭함에 기반한 우정으로 나누고 첫 번째 우정은 가장 수준 낮은 우정, 사실한 정말 우정이라고 하기 힘든 우정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사이의) “확신과 감정을 공유”하는 밀의 우정의 개념은 3번째 우정, 즉 가장 고차원의 우정에 해당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밀이 글을 얻을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설명은 토크빌에 대한 밀의 우정을 그만큼 얇은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밀과 토크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알려진 노예와 여성의 해방에 대한 밀의 입장은 진정한 자유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감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자메이카와 아일랜드와 관련한 밀의 의정활동도 시대를 앞서나간 선구자로서의 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록 영국의 민족주의 정서에 부딪혀 현실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심판을 추구하는 영국인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밀의 모습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관련한 제국주의에 대한 밀의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는 토크빌도 별반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밀의 소위 ‘선의의 제국주의’가 위선적이라는 토크빌의 비판은 옳아 보이지만 또한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자국(자국의 “명예와 정의”?)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토크빌의 입장도 제국주의라는 면에서는 하등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는 일차적으로 영국의 인도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틀리지 않은 것이라면 동인도회사에 반평생을 몸담아 일하

면서 ‘선의의 제국주의’를 운운한 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책에서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부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밀과 토크빌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생각이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교묘한 압력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토크빌은 가족, 이웃, 교회 등 사회 제도, 특히 자발적 사회조직이 민주주의의 극단적 경향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강제력에 맞서 개인을 지키는 튼튼한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270쪽)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주 46에서 학술논문의 서지사항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독립된 장으로 설명을 덧붙여 주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대철학 전공자이자 플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밀에게서 플라톤의 ‘철학자’(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愛知者)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아련한 감정을 줍니다. 현실사회 안에서의 애지자의 지위에 대한 플라톤의 예측들, 즉 애지자는 (돈이나 명예를 사랑하지 않기에)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좋음에 대한 관심이 그를 정치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도, 전체 사회가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는 한 그가 현실정치에서는 실패하리라는 것도 밀에게서 실현되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위대한 정치]와 같은 책이 있기에 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간 밀과 토크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지식인들의 성취와 실패를 보고 그 둘 모두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이 (저자가 지적하듯이 학자의 본분인) 학문적 연구로 결실을 맺은 현실 정치에의 (좀 더 현명한 방식의) 참여로 나타나는 말입니다.